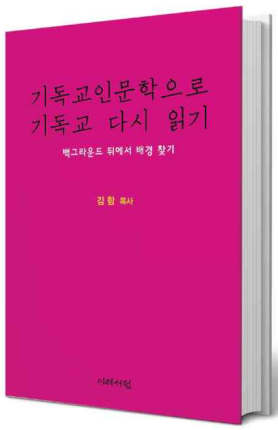

기독교인문학으로 기독교 다시 읽기
김함 지음
꿈을 이루는 사람들

기독교를 믿는 이유, 이기심의 정당성

당신은 기독교를 '왜' 믿는가? 이 질문은 많은 사람들을 당혹케 할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물론 상당수가 모범답안 같이 "나의 주인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이란 식으로 대답하겠지만 이는 질문의 의도를 요령 있게 피해간 것에 지나지 않는다. 마치 "너는 영화를 왜 보니?"라고 물어봤는데 "나는 영화가 좋거든."이라고 대답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이다. 동어반복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위 질문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도대체 기독교인들은 기독교를 '왜' 믿는 것인가. 계속 질문을 던지다 보면 사실 이기적인 결론이 나오는 게 대부분이다. 우리가 종교를 믿는 이유는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이다. 이기적이란 표현은 좀 과했다. 이기적이란 표현보다는 자신의 생존을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게 맞다. 그러나 이기적이란 표현이 과연 과한 표현인가? 아니다. 터놓고 말해서 기독교인 상당수가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세속에서의 출세를 위해, 혹은 다른 욕심으로 교회를 다니는 게 맞지 않은가? 자칫 기복신앙으로까지 폄훼될 수 있을 정도로, 특히 대한민국에서 기독교신앙은 많이 오염된 것도 사실이다. 오죽하면 세간에 '개독교'라는 말이 떠돌 정도니 말이다. 그래서 '이기적'이란 표현은 과하다기보단 너무 우리의 민낯을 보여주는 느낌이라 거북하다는 게 맞다.

김함 목사가 지난 4월 쓰신 책「기독교인문학으로 기독교 다시 읽기」는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많이 담겨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이기심, 아니 생존욕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을 솔직하게 인정해서 좋다. 굳이 억지로 인간이 가진 원죄의 무게를 버리려 하지 않는다. 많은 부분 우리 인간들이 가진 한계를 인정하면서 그렇다면 기독교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종종 듣던 얘기와는 전혀 다르게, 그러니까 신선하게 기독교의 말씀을 재해석하고 새로운 자세를 제시하는 경우도 많아 읽다 보면 절로 이런저런 고민에 빠질 것이다.

서두에 언급한 얘기를 다시 돌이켜보면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기심, 아니 생존욕의 정당성을 배웠다. 즉 내가 나를 위해 열심히 살다 보면 그것이 절로 남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가르침이다. 본문에서 인용된 이 구절 덕분이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요 4:38)

내가 뿌린 것을 남이 거두고, 남이 뿌린 것을 내가 거둔다. 이 세상이 굴러가는 멋진 원리다. 이것이 진실이라

면, 나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이 곧 남을 위하는 게 되고 더욱이 남들의 도움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아닌가! 말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만 아니라면 우리의 삶은 그만큼 충분히 가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위 주제를 포함한 몇 가지 주제로 제한해 이 책을 정리하기란 사실 불가능하다. 총 3부, 35개로 이뤄진 각각의 장에서 워낙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방금 언급한 부분에 많이 공감했다는 정도. 아마 다른 독자들은 (그들의 시각에서 이 책을 볼 것이기 때문에) 나와는 전혀 다른 부분에서 배움을 얻을 것 같다.

책의 폭이 넓어서 읽노라면 김함 목사의 넓은 식견에 감탄하게 된다. 책의 제목이 참 적절하다는 생각이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그가 본문에서 계속 언급하는 '후기 자본주의 사회'라는 게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다는 것이다. 경제학자나 사회학자들 사이에서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두루뭉술하게 현실을 제한하는 건 아닌가 약간 우려도 된다.

그럼에도 김함 목사는 큰 꿈을 가진 분으로 보인다. 그가 책 말미에 제시하고 있는 크리스천 전인통합훈련 커리큘럼이나 본문에서 제시한 아프리카 선교 계획 등에서 그 꿈이 얼핏 보인다. 자칫 이런 꿈들은 허황되고 현실성 없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믿으면 산도 옮길 수 있는 게 기독교의 힘이라는데, 저런 꿈을 마냥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외면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도 든다. 온 세상을 복음으로 가득 채우겠다는 욕심을, 기독교인이 아니면 과연 누가 꿈꿀까?

책 속의 한 줄

자신이 세리임을 인식하고 그것이 죄악임을 자각하고 난 다음에도, 거기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p.87

홍훈표/작가/음악을 하고 싶었지만 글을 쓰는 사람